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DECEMBER 2024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52



2024년 골든클럽 마지막 골프대회를 보내고

10월 31일 Sunset Valley Golf Course에서 골든클럽의 2024년 마지막 골프대회를 가졌다. 11월 3일 Summer time 해제되기 직전에 Rounding을 함으로써 너무 이른 시간의 Tee time을 피하고자 하였다. 총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 대회 보다 많은 인원인 30명이 참가했고 날씨도 비교적 따뜻하여 골프 치기 좋은 날씨로 즐거운 골프를 하였다.

골프를 마치고 객선섭 회원의 집에서 가진 시상식 및 여흥시간에서는 푸짐한 음식으로 배를 든든하게 한 후 품격 있는 음악과 여태까지의 골든클럽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감상하며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객선섭 회원님은 최근 뒤뜰에서 피크닉을 준비하시며, 추운 날씨에 대비해 대형 야외 난로 두 개를 마련해주셨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과 빈번한 산불로 인해 Charcoal/

firewood 사용이 금지되어 부득이 난로 사용은 내년으로 연기하였다. 특히 문영희 사모님께서서는 주얼리 비즈니스 운영에 바쁘시면서도, 3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도록 1주일 전부터 집 안팎을 정리하시고, 성인음료와 식사까지 깔끔하게 준비해 주셨다.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 신년교례회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패를 준비해 드리기로 사모님께 약속드렸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신 객선섭 회원 부부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80대 중 후반이신 김한중, 박기환, 손갑수 회원이 노익장을 과시하여 시상자의 명단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봄에 다시 시작할 골프대회를 기약하면서... [김병순(사회82)]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2024 송년회 겸 정기총회 개최 안내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감하면서 동문 여러분들을 아래와 같이 초대합니다. 이번 송년회가 반갑고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화기에에만 분위기로 동문 선우배를 반갑게 맞아 친담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동문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일시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오후 9시
*참가비: \$120 (2000년도 이후 입회생 참가비 면제)

장소
Double Tree by Hilton, Fort Lee, NJ
2117 Route 4E, Fort Lee, NJ 07024
4시~5시 Reception Cocktail (음료 및 간단한 식사)

제1부: 정기총회: 차기 임원 선출 및 회칙 개정안 인준
정학급 수여
기념 촬영 단체 사진 외 동문 스그램과 가족의 photobooth도 운영 5시30분 - 8시30분

제2부: 축하 음악회 (음대동문 특별연주/동문합창단 합창)

제3부: 야후과 경품 추첨
(대상: 한국 장북티켓 외 1등 Laptop computer 등 다수 상품)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R Code를 이용)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New York Chapter

뉴욕지역 동창회 | 이사장 권정덕 (315-796-5455) | 회장: 김정필 (201-965-7759) | 사무총장 이창길 (917-279-5431)

SNU NY 송년회

2024년 뉴욕동창회 송년회가 12월 7일 4시 NJ Fort Lee에 위치한 Double Tree Hotel Grand Ballroom에서 열리며 장학금 수여식이 함께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30여명의 동문합창단이 출연하며 음대 미니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기념이 될 수 있도록 Photo Booth를 준비하였으며, 동문 화백들의 작품을 silent auction도 준비합니다. 이번 행사에 부부 함께 참석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위에 있는 젊은 동문들에게 알려서 함께하는 풍성한 송년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12월 7일 (토) 오후 5시
회비: 1인당 \$120



2025 Golden Club 신년교례

2025년을 시작하는 신년교례회가 3월 22일 (토)에 열립니다. 이번에는 RT 80번과 17번이 교차하는 요지에 있는 Hilton Hotel로 장소를 변경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날짜: 2024년 3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Hilton Hotel, Hasbrouck Heights/Meadowlands
650 Terrace Ave, Hasbrouck Heights, NJ 07604
회비: 1인당 \$120

고 김종율 박사님을 추모하며



September 15, 2018 50th Wedding Anniversary

고인이된 김종율 선배님은 지난 2009년 11월, 이준행 선배님이 골든클럽 4대 회장으로 추대될 때부터 골든클럽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함께 구상하고 추진하셨습니다. 골프 동호모임 형태에서 발전하여, 2010년 4월부터는 뉴스레터 발간, 하이킹 및 골프여행, 바다낚시, 야외 피크닉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원들 간의 연대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에는 디렉토리 발간에도 참가하셔서 더욱 더 많은 회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습니다. 2012년 9월, Pocono Mt Airy 골프여행 중 카시노 숙소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넘어져 응급치료를 받고, 결국 Presbyterian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으신 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셨지만, 최근 3년여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11월 14일 92세의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그동안 김 선배님 간병에 전념하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옥수 사모님과 따님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September 03, 2021 Paying a visit to encourage him





골프대회후 객선섭 회원택 뒤뜰에서 열린 뒤풀이



골프대회 입상자: 이종대 손갑수 박기환 이영범 오용호 김한중



골프대회 뒤풀이에 함께한 여성회원님들



골프대회 Close pin: 손갑수 이종대 조승자



송년회 합창발표를 위하여 11월 22일 팔각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30명의 동문들이 변진환 (94) 동문 지도아래 합창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하였다.



11월 1일, 정해민 고문께서 이준행 회장님을 찾아 문안을 드리고 환담을 나누셨다. 대화중 장수 이야기가 나오자 이 회장님은 100세가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건강 유지에 강한 의지를 표명 하였고 클럽에서 내년 3월에 96세 축하연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11월 14일 하이킹 흥종만 흥예경 조승자 (조달훈)



이전구 회원께서는 2024년 상록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정해민의 삶”

■ 대담 및 정리 김병순

성장과 학업

나는 아버지 정인목(부산상고, 명치대학) 어머니 황차수(경기여고, 동경여자대학) 사이에 6남매중 다섯번째 4남으로, 부친이 대학 졸업 후 첫 부임지인 경남 함안군 칠연면(일제 당시 금융조합 이사)에서 출생했으나, 1년후 부친의 전근으로 거의 서울에서 성장하였다. 그래서 밖에서는 서울말, 집안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10세에 해방을 맞이한 바 현존하는 한인 생존자 중 우리 세대가 일제로부터 모든 수난과 고통을 겪었고, 또 보고 들은 산 증인으로 남아있는 무리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1949년 타 학교에 비하여 학비가 적은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특차로 입학하였다. 1950년 6. 25 때는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성북동 친척집(위장이 잘 된 집)에서 아버지와 형들은 북한군에게 들켜 지 않고 지낼 수 있었고 제일 나이가 어린 나는 낮에 필요한 식품을 구해오는 역할을 어머니와 함께 도맡아 하게 되었다.

서울사대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법과대학에 지원한 13명이 전원 합격하였고 동기생중 한 명은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때도 있었다. 물론 타 대학 입학률도 좋았다. 당시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명성이 ‘천하부고’ 답게 얼마나 대단하였나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청년시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할 당시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다. 첫 직장으로 대한중석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61년에 5.16 군사혁명으로 퇴사하고, 다음은 문교부 해외 협력관으로 ‘해외 유학생 지도교수 위원회’의 간사직도 겸임하면서 해외유학생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유학생 시험(영어, 국사) 학비 송금 허가, 미국 대학으로부터 의뢰해온 장학금 배분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다.

결혼과 이민초기

직장에서는 거의 매일 대부분 부유한 집안의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자녀-선남 선녀들과 그 부모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그 중 한 미인(유학 희망자)의 소개로 그 동생과 교제, 약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결혼 후 보다 안정적인 직장인 국제화학 서울사무소의 무역 및 영업담당 과장으로 이직하였고 여행사의 영업이사로도 일을 한 바 있다. 결혼 후 2명의 딸을 낳고 살던 중 1974년 이미 미국에서 살고 있던 나를 중매한 처형네의 형제 초청에 의한 이민 신청을 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부조리에 대한 반발이 이민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된 듯하다. 거기에 자녀교육 문제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불과 거의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1인당 150불씩 총 600불만 지니고 왔는데, 당시 큰 딸이 8살이고 작은 딸이 4살이었다.

1988년에는 사대부고 동창회장을 맡아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했다. 사회 활동으로 **뉴욕한인봉사센터 이사장** 재임 때 한 가지 특기할 것은 당시 사무총장이던 김광석씨와 뉴욕시의 토지, 건물 경매 입찰에 참가하여 토지 한 필지를 낙찰(22만불) 받은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당시 봉사센터에서 운영하던 경로회관은 한 한인교회의 친교실과 주방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자체 건물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그 후 그 필지를 판매한 대금(200만달러)이 궁극적으로는 현 봉사센터(현 KCS) 건물을 매입하는 종잣돈이 된 것이었다. 이 공로로 “VISION AWARD” 상을 받았다.

뉴욕에서 이미 자리잡고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이민생활 시작 몇개월 만에 뉴욕의 3대 흑인지역인 자마이카에서 작은 잡화상을 시작으로 그 후 스트푸드 가게 및 남자 옷가게를 추가하여 동시에 세 가게를 운영하였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Manager를 두고 운영하게 되어 대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었다.



한인사회 봉사활동

A폭동 이후 흑인들과 한인들 간에 갈등이 뉴욕에서 상당히 심하게 표출이 되던 시기가 있었었다. 흑인들이 한인상가 앞에서 영업방해를 지속적으로 해서 한인들에게 어려움이 많았다. 나는 흑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 한인상가의 주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흑인들의 요구사항인 약간의 생계비와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도록 하는 등 중재자의 역할로 갈등 해소에 힘썼다.

그 당시연례만찬 형태의 모임을 시작하였다. 극장 등의 장소를 빌려 총영사, 지역 주요 인사 및 흑인 지도자, 단체장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나누어 주고 친교를 통해 다민족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그들의 행사때 와인이나 선물을 갖고 가서 유대 강화에도 힘썼다. 그런 영향으로 자마이카 지역의 한흑갈등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또 뉴욕시의 청소년 및 지역개발국(DYCD)의 **시민권 프로그램 책임협력관 및 이민자주도부 협력관** 역할을 통해 한인은 물론, 뉴욕의 다인종들을 대상으로 봉사함으로써 봉사 spectrum을 넓히기도 하였다. 주 업무가 언어소통이 어려운 이민자대상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이었다. 8년 근무기간중 5,000건(한인 포함)이 넘는 실적과 함께 소수 민족을 위한 뉴욕시의 공공혜택 안내서 한글판 책자 발간(모금을 통한 자금 조달) 배포 등으로 뉴욕시 공익옹호관으로부터 “Extra Ordinary Citizen of the city of New York(최우수 뉴욕시

민)으로 선포문(Proclamation)을 받기도 했다.

뉴욕, 뉴저지 유권자센터(현 시민참여연대 KAVC)의 자문위원장,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주 업무는 유권자 등록, 각 교회' 행사장(추석 잔치 등)에 직원들과 나가서 많은 실적을 쌓았다. 특기사항은 미 하원에서 소위 '일본국 위안부 하원결의 121'을 의결한 것이다. 유권자센터 이사장 당시 교포 기구인 '하원결의 121 뉴욕추진연대'의 공동의장으로 본 결의를 위해 대형버스를 대절하여 한인 노인, 성인, 청년 봉사자들을 싣고 10여차례 DC의 미 의사당에 새벽에 출발하여 거의 자정 가까이 돌아온 일도 아직 기억에 생생하다. 의사당에서는 미리 조를 짜서(2-3명씩) 유권자 등록서 사본 문치를 들고 지역구 별 하원 의원실을 돌면서 결의 동참, 권유를 하고 돌아오면 거의 밤 12시가 되곤 하였었다. 이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10회의 버스 대절, 세끼 식사대 뿐 아니라 의회 전용 신문 광고료, 생존 위안부 노인 중 가끔 1-2명을 미국에 초청하는 비용 등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조달했다. 본 결의를 성취하는데는 일본 태생인 Mike Honda 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컸다. 유권자센터에서 그에게 공로패를 주었고 재선, 3선을 위한 모금행사도 개최한 바 있다.

급기야 결의가 통과되었으나 일본 측에서는 여전히 수년간 사과하지 않고 있어, 뉴저지 팻콕 소재 공공도서관 부지에 미국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를 별도 모금하여 건립하였고 아직도 그 곳에 자리잡고 있어 역사적인 2차대전 당시 일본인의 야만적인 여성 인권 유린에 대한 실상을 후세나 세계시민들에게 알리는 교육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Mike Honda 의원으로부터 의회 공로패 'Special Congressional Recognition'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한글학교를 설립** 및 초대 교장을 역임했다 또한 ELCOS (엘름허스트 커뮤니티센터) 설립 및 이사장으로 인근 뉴타운 H. S.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SAT 및 영어, 배구 교실 또는 ME & Mom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한 바 있다. 지역구 하원의원과 주 상원의원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한빛 상담실도 설치해 교인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상담 및 지역 봉사도 하였다.

서울사대부고 뉴욕동창회에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 모교에 나가 당시 교장/교감선생과 MOU를 체결하고 매년 모교 졸업예정



자 2명에게 1인당 1,000달러씩 장학금을 보내주기로 하고, 지난 8년간 팬데믹 기간 중에도 중단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2월에 2,000달러를 송금할 것이다. 미 동부지역에 온 모교출신 유학생과 동창회원 자녀 손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인사회 연구재단(RFKC) 공동 설립자 겸 초대회장에 이어 현 이사장으로 뉴욕한인회로부터 '올해의 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RFKC의 주업무는 재외한인사회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여러 책자와 매년 3-4회 세미나 개최 비용 및 박사학위 중인 한인학생 장학금 수여 등 한국 정부 미국정부 및 이민자를 위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급하는데 크게 힘썼다. RFKC에서 Queens College의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 5,000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교회 및 교단 활동

본인이 소속된 미주한인 OO 교회 미주 총회가 매년 미 주요 도시에서 개최시 시무장로로 장립 이후부터 은퇴 전까지 거의 매년 동부 지방회 및 총회 대의원 자격으로 참가, 각 부서의 주요직인 인사부, 심리부, 법제부, 조정위원회, 심판위원회 등의 서기로 선임되어 교단 정상화와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 참고: 본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각 부서와 위원회의 장은 목사만이 될 수 있고 장로는 서기(부서의 차장 격)로만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동부지방회 장로회와 미주 총회의 전국 장로회를 설립하여 초대회장으로 각각 다년간 봉사하였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한국 교단과 미주 교단의 통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양 교단의 헌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에 따라, 미주 대표단 13명이 한국 총회에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미주 대표 13명 중 12명이 각 부서장인 목사들이었고, 장로는 본인 혼자였다. 최종 합의문 작성 때는 본국과 미주 대표단에서 각 2명씩 선발했는데(목사 장로 각 1명) 미주 대표단의 장로대표로 선임되어 역사적인 통합합의문 작성을 함께한 일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여겨진다. 70세 정년 은퇴시 원로장로로 추대돼 현재는 뒤에서 교회와 교단을 돕고 있다.

가족 소개(딸 자랑)

지면관계로 가족 소개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한명-미국을 때 4살이었던 둘째딸 Nancy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한다. 이민 초기에 우리 부부는 흑인촌에서 세계의 가게를 운영하느라 눈코 뜰새없이 뛰고 있어,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는 시간과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손이 닿지 않음) 아파트 문을 혼자 열 수가 없는 이유로 힘이 부족) 누구든지 이 아이를 보는 사람은 좀 도와달라는 쪽지를 그의 목에 걸 수 있게 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다가 수 개월 후 그 시간에 맞추어 베이비시터를 구한 후에

야 그런 일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곡예를 한 것인지 몸이 오싹할 정도이다. 그렇게 자란 아이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학교부터 뉴욕의 명문사립학교에 입학시켜 교육 받게 하고 대학 졸업후 Fulbright Scholar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또 본인이 한국을 선택하여 1년간 한국 법원 및 몇 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후 Georgetown Law School을 거쳐 변호사로 근무한 지가 20여년이 되었다. 이번에 Sidley Law Firm 뉴욕지사의 총 관리책임자 (Managing Partner)가 되었다. 뉴욕 지사 개설 이래 110년만에 여자가 책임자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 회원 자녀 손들에게도 귀감이 될 듯하여 소개해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Search에서 Nancy Chung, Sidley에서 볼 수 있다.

수술, 회복과 감사

큰 수술(심장-4회, 위장, 소장, 전립선, 낙상사고 등)을 위해 10회나 엠브랜스에 실려 응급실로 향한 위급한 상황을 치르고도 아직까지 연명하면서 나름대로 남을 도울 수 있게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무엇보다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전적으로 희생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고비 때마다 나의 이상상태를 먼저 감지하고 응급차를 불러 발빠른 조치를 취해준 집사람이 가끔 천사(?)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기도 했다. 우리 부부는 지난해 결혼 60주년을 보냈다. 가정의 우애와 화합, 그리고 건강과 형통을 안겨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항상 즐겁게 암송하며 묵상하는 성결 구절은 시편 23편이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중략)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후략)
 -아멘-**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 사무실 (Office of Advocate for the City of New York) 선포문 (Proclamation)



뉴욕시가 대도시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대한 도시는 평생의 좋은 시민권자들을 통해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모범적인 봉사를 수행하는 개인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문제에 대한 현실이 뉴욕 대도시내의 한국이민자와 다른 민족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 시민 즉 정해민 씨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1974년 씨가 미국에 도착하자 그는 빠르게 성공적인 기업가로서 자리매김했고 자마이카 한인상인번영회를 결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결국 1980년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청소년 및 지역개발부의 커뮤니티 커디네이터로서, 또 다이렉트 아우리치 커디네이터로서 그는 뉴욕시의 이민자(언어 소통이 불편한 자) 들을 위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 한인봉사센터 이사회장으로 봉사한바도 있으며 한인 유권자센터의 이사장일 당시에는 한국이 일본 지배하에 있던 2차대전 당시 한국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한 여성들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미 하원결의안 121” (“ Res. 121 “Comfort Women”)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대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인공동체에 대한 그의 이런 뛰어난 공헌들로 그를 뉴욕 한인회로부터 “올해의 한인상” 을 수상한바도 있기에 뉴욕시의 공익옹호관인 나는 오늘 2009년 6월 19일을 기하여 David Haemin Chung(정해민 씨) 을 기리며 축하와 동시에 그의 미래를 예고하기 위해 “뉴욕시의 “최우수시민(Extra Ordinary Citizen of the city of New York) “으로 결의했음을 선포합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 벤티스 갓 바움
 (Betsy Gotbaum , Advocate for the City of New York)**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 여주영 (명예회원)

현대인은 기계문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그 중 하나가 우리 생활에서 없으면 안 될 조그마한 크기의 핸드폰이다. 손바닥만한 이 폰은 있을 땐 문명의 이기요, 없으면 졸지에 먹통을 만들어버리는 물건이다. 각자의 필요로 저장한 모든 인포(info.)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기기를 잃어버려 답답하고 아찔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마 나뿐이 아닐 것이다.

지난달 28일 골든 클럽의 올해 마지막 골프행사가 있었던 선셋 골프장에서의 일이다. 그곳에서 내가 폰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찔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날 골프장에서 조승자 동문과 그곳까지 동승하고 갔던 문 선씨(최한용 동문 부인)와 같이 즐겁게 18홀을 잘 마치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앞이 캄캄했다. 회원들은 디너를 준비한 객선섭 동문댁에 갈 채비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문 선씨와 함께 혼이 나간 상태에서 폰을 찾으러 다시 카트를 타고 골프장을 한 바퀴 돌았다. 하지만 폰은 보이지 않았다. 못 찾고 나오니 흥선경 동문께서 핸드폰을 빌려주며 또 한 번 번호를 올리면서 돌아보라 하셨지만 그것도 허사였다. 기분같아선 그대로 집으로 향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를 태워 온 문 선씨가 무슨 죄? 저녁도 안 먹고 그냥 돌아가자고 할 수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감춰놓고 문 선씨와 뒷풀이 장소로 가서 회원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차려진 음식을 나누며 참가한 여성들과 함께 잠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온통 핸드폰 생각만 맴돌고 있었다. 정말 영영 못 찾으면 어쩌하나 걱정이 앞섰다. 애초에 가져간 한 문 선씨에게 거리가 너무 멀어 차라리 우리 둘이 동네 가까운데 가서 치자고 권유했던 말을 좀 더 강력하게 못하고 진 것이 은근히 후회가 되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답답한 마음에 저녁을 먹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혹시나 누가 폰을 줍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하면서 집에 왔지만 밤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다음날도 딸 폰을 쓰면서 그 폰으로 아무리 내 폰에 연락을 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내 전화기 커버 밑부분에는 자막이 지나가는 것처럼 딸의 폰 번호가 입력돼 있는 상태. 누군가가 내 폰을 주우면 딸 번호로 연락을 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틀을 기다려도 아무런 답이 없어 가슴이 바짝 바짝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그 폰 안에 나의 많은 정보 보기가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틀이 지나도 내 전화기의 벨은 여전히 울렸다. 배터리가 계속 충전돼 있는 상태였다. 그나마 배터리가 살아있어야 전화기 커버에 딸 번호로 해달라는 부탁의 움직이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 거의 포기상태로 전화상에 가서 새로운 전화기의 모델을 정해놓고 돌아왔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사흘간을 폰 없이 불편해도 많은 골퍼들이 올 것이기에 거기에 가느라 희망을 걸고 어디선가 연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토요일 오후 5시경 정말 뉴저지 번호를 가진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왔다. 받아보니 한국인 젊은 여성, 바로 천사의 목소리였다. “혹시 전화기 잃어버리셨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다. 바로 나의 전화기를 13번 홀에서 골프를 치다 떨어진 공을 찾아보다가 나의 전화기를 발견했는데, 보니 전화기 밑에 내가 입력해 놓은 번호가 있어 그걸 보고 전화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고맙고 기쁘고 반가웠는지.. 그녀가 골프 팀 친구들과 포트리에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해 그곳으로 가겠다고 뉴저지행 버스를 타고 곧장 달려갔다.

전화기를 주운 여성은 아주 예쁘고 멋진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를 만나자 반가움에 당장 껴안고 손잡고 하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그 애간장을 태운 나의 전화기를 돌려받았다. 내 손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너무 고마워서 그녀의 식사비를 좀 주려고 하니 전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다음에 뉴저지에 오면 한 번 식사연락을 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다시 돌아오는 뉴욕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전화기를 만지고 또 만지고, 두 번 다시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박 3일간은 숨 가쁜 시간이었지만 폰을 찾고 보니 그 순간들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짜릿하게 느껴졌다. 그사이 마치 꿈을

을 꾸는 것 같았다. 핸드폰 하나에 이렇게 고초를 겪다니.. 이게 어디 나 뿐일까. 그래도 전화기 커버 하단에 "attention please call 347)753-7138 if found" 라는 한마디 문구를 왼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 놓았으니 다행히 쉽게 내 손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핸드폰이란 물체는 작은 크기여서 누구나 쉽게 손에서 놓칠 수 있다. 그래도 애플 폰은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삼성 폰의 경우, 일단 삼성에 자기 고유 패스워드를 넣어 등록해 놓고 있어야 "find me"라는 앱을 통해 전화기의 최종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다 떠날 때 반드시 전화기를 지참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쓰리게 하는 것이 핸드폰 분실이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 깜빡하는 일이 잦아보니 핸드폰 분실은 누구든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핸드폰은 이제 누구나 한 눈 팔지 말고 잘 지켜내야 할 중요한 물건이 되었다. 아차 순간 잃고 나면 골머리 아픈 것은 물론, 그 안에 보관해둔 많은 정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찾고 보니 행운, 달콤한 추억이었다.

회원 명단 (112명 / 2024-11-25)

강교숙	김상만	박희병	윤선구	이행순	최한용 최학주 한민우 한영오 한대진/ 한용희 허용웅 허유선 홍선경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배상규	윤상영	이홍빈	
강영선	김영덕	성기로	윤재옥	임도혁	
계동휘	김영만	손갑수	윤종숙	임호현	
고애자	김우영	손경택	윤현남	정노현	
곽상준	김익성	손대홍/ 남종현	이강홍	정수일	
곽선섭	김정필	손옥화	이민제	조달훈/ 조승자	
곽승용	김종율	송근숙	이상무	정해민	
권문웅	김창수	송용길/ 송현자	이승준	조상근	
권정덕	김충정	송학린	이 준	주재양	
권영대	김치갑	송혜순	이대연	진봉일	
권태전	김태일	신진식	이영범	천병수/ 천종화	
금영천	김현중	신응남	이용대	최구진	
김광수	노승만	신응남	이위곤	최병우	
김광현	노용면	오순문	이전구	최준희	
김동건	민준기	오용호	이종대	최한용	
김문경	박기환	오인석	이종석	한민우	
김문언	박상원	우규환	이준행	한용오	
김병순	박준구	유무영			

2024년 연회비 납부 명단 93명 / \$9300 / 2024-11-25

강에드	김문언	노승만	신두식	이상원	정해민	한태진
강영선	김병순	민준기	신진식	이승준	조달훈	한용희
계동휘	김상만	박기환	오순문	이영범	조승자	허용웅
고애자	김영덕	박상원	오용호	이용대	조상근	허유선
곽선섭	김영만	박준구	이위곤	이전구	주재양	홍지복
권문웅	김우영	박희병	오인석	이종석	진봉일	홍선경
권영대	김익성	배상규	우규환	이종대	천병수	홍종만
권정덕	김정필	성기로	윤상영	이 준	천종화	홍예경
권태전	김종율	손경택	윤선구	이행순	최병우	홍정표
금영천	김태일	손갑수	윤종숙	이홍빈	최준희	
김광수	김한중	손대홍	윤재옥	임도혁	최학주	
김광현	김홍빈	송근숙	이강홍	임호순	최한용	[2025]
김동건	김현중	송용길	이대연	주상선	한민우	정수일
김문경	남종현	신응남	이대영	정수일	한용오	곽선섭

2024년 후원금 기부 명단 (30명 / \$13110 / 2024-11-25)

강에드 200	김종율 200	오용호 300	임호순 300	한태진 500
계동휘 300	김한중 300	이강홍 200	정수일 300	홍종만 1000
곽선섭 400	노승만 100	이위곤 100	정해민 1000	
권정덕 300	성기로 500	이전구 1000	주재양 210	
금영천 300	손경택 1500	이종대 200	최상립 2000	
김광현 500	신두식 200	이 준 100	최준희 400	
김문경 200	신진식 300	이행순 200	최한용 200	

2024년 입회비 납부 명단

한민우 200	이위곤 200
노승만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이준행 1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4-10-25)

1월	24일 (수)	Zoom 경제 세미나 (14명 참석)
2월	22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3월	21일 (목)	Hiking
	23일(토)	신년교례회 - Double Tree Hotel, NJ
4월	25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Golf Club (36명참가)
5월	23일 (목)	Hiking (6명 참가)
6월	6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45명참가)
	27일(목)	Hiking
7월	11일(목)	Golf Outing Wallkill Golf (29명참가)
8월	15일 (목)	Golf Outing (33명참가)
	22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Alpine Pavillion (150명 참가)
9월	12일(목)	Golf Outing-Hudson Hill Golf Club(27명 참가)
	26일(목)	Hiking
10월	12일(토)	동창회 추계골프대회-Split Rock (21명)
	17일(목)	Minnewaska Lake 단풍관광 & 하이킹
	31일(목)	Golf Outing - Sunset Valley Golf Club (30명)
11월	14일(목)	Hiking (4명)
12월	7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8일-14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2일(토)	2025년 신년교례회-Hilton Hotel Meadowlands



1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문언 (공대66)
- 김승호 (공대71)
- 신진식 (농대57)
- 오용호 (의대66)
- 최구진 (약대54)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